

공간통합·시설공유형 협업 본격화

순창군 '구곡순담 장수벨트협의회 공동사무국 설립 및 운영' 최종 선정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공간통합·시설공유형 협업사업'에 전북 순창군이 제출한 '구곡순담 장수벨트협의회 공동사무국 설립 및 운영' 사업이 최종 선정돼 특별교부세(국비) 2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에 따라 순창군은 오는 12월까지 국비 포함 총 3억원을 투입해 이번 사업을 본격추진 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공간통합·시설공유형 협업사업'은 기관 간 칸막이를 넘어 지역과 관할이 다르더라도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

체 간 협업 유도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건강과 장수를 테마로 연계된 구곡순담(구례, 곡성, 순창, 담양), 4개 군은 2003년도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장수벨트 지역으로 '구곡순담 장수벨트행정협의회'를 구성, 매년 4개 군이 돌아가면서 회장군이 되어 장수에 관련된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순창군은 구곡순담 공동사무국 건립을 통해 다양한 국비 사업 발굴 및 추진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지역 간 상생 협력체계 구축의

국내 우수사례 모델화 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공동사무국 설치를 통해 주도적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던 건강관련(힐링, 식습관, 운동 등) 교육 및 노후 준비교육(은퇴자 등)을 통합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공동사무국 설치예정지인 순창 신헌랜드는 주변에 순창건강장수체협과화관, 건강장수연구소 등 건강과 힐링이 관련된 교육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최적의 장소라는 평을 받는다는 지역 간 상생 협력체계 구축의

남원시, 광한루 600년 기념행사 성황리

각종 프로그램 관광객 호응

남원시는 광한루 건립 6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진행한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5일 밝혔다.

광한루는 1419년 황희 정승이 누각을 짓고 광통루라 부른지 올해로 600년이 되었으며, 남원시는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음력 7월 7일(칠월칠석) 전후를 광한루 600년 기념주간(8월 2일부터 10일까지)으로 정했다.

이번 행사기간 요천 둔치에서는 남원에서 생산되는 막걸리와 인주를 한 곳에 모아 "제1회 한여름밤 남원 막걸리 축제"가 열렸으며,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발디딤 없는 인파가 찾았으며, 이번 기념행사의 각종 프로그램 진행에는 남원시 홍보대사인 개그맨 김범준씨와 조래훈씨가 매끄러운 진행 솜씨를 뽐내며 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을 만족시켰다.

8월 3일 광한루원에서는 ▲기념식수, 성주굿, 연혁·편액낭독 및 기념사로 구성된 '기념식' ▲600여통의 사랑의 편지를 담은 타임캡슐 봉인식 ▲시민·관광객 200여명과 함께하는



남원시는 광한루 건립 6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진행한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600번의 타북행사 ▲광한루의 국보승격을 위한 학술대회 등이 진행되었다.

▲광한루 앞 차 없는 거리에서는 남북정상회담 표지석을 쓴 여태명 선생의 대형 붓글씨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명가수들이 참여한 축하공연이 펼쳐졌으며,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관광객이 참여해 광한루의 600번째

생일을 축하했다. 이밖에도 광한루원에서는 남원시민 80여명이 기획하고 출연하는 남원시 대표 문화관광브랜드인 신관사또부임행차공연, 정유재란때 일본으로 끌려간 남원출신 도공후손들에 의해 불려지는 남원의 아리랑 '오늘이 오늘이소서' 공연 등 다양한 공연들이 펼쳐져 한여름밤의 열기를 식혀주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 수집 공모전

남원시는 남원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 수집 공모전을 8월부터 2년간 가진다고 밝혔다.

이번 콘텐츠 수집 공모전은 남원의 기억을 기록으로 보존하고 앞으로의

이야기들을 담은 남원다움관 개관을 앞두고 기획되었으며, 대상은 남원에 대한 모든 창작 콘텐츠이다.

관련 시기는 동학농민이 시작된 1894년부터 현재까지로, 출품작은 순수 창작

작이거나 수집한 콘텐츠로 제한하고 지원서류(응모신청서, 저작권 동의서 등)를 작성해 작품과 함께 남원시 총무과(063-620-6083)로 접수하면 된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대상(1명) 200만원, 금상(2명) 240만원, 은상(4명) 225만원의 남원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

지역 매아리

임실군 청년농업인 육성

임실군은 농촌지역 고령화에 대응하여 열정과 신기술로 활달 뚝진 청년농업인을 육성한다.

군은 청년농업인의 성공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2020년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 공모 신청자를 2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신기술과 청년농업인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융복합되어 농산물의 고부가가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사업이다.

매년 8월 전북도에서는 시군농업기술센터의 추천을 받아 서류심사,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다음해 사업을 추진하는 도 단위 자율형 공모 사업이다.

올해는 도내 5개소를 선정하며, 사업비는 개소당 5천만원(보조 90%, 자부담 10%)이다. 군은 그동안 2016년과 2018년에 각각 1명씩 선정되어 사업비를 지원 받아 청년농업인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과 조기 영농정착을 도왔다.

신청자격은 만 18세 ~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으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병역필 또는 면제자이며,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1명을 선발해 전북도에 추천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이달 23일까지이며, 임실군청(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군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640-2753)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는 지난 3일 시장실에서 홍보대사 4명을 위촉하고 위촉패를 전달했다.

"남원 위상 높이는데 열정 다해 달라"

시, 가수 김용임 씨 등 홍보대사 4명 위촉

남원시는 지난 3일 시장실에서 홍보대사 4명(신규2명, 재위촉2명)을 위촉하고 위촉패를 전달했다.

이번에 신규 위촉된 2명은 가수 김용임(54)씨와 방송인 김봉곤(52)씨이며, 가수 소명(61)과 방송인 노민(48)은 재위촉 됐다.

신규 위촉된 가수 김용임 씨는 2018년 성인가요 대상, 2018년 대한민국 가수대상을 받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김봉곤 씨는 청학동 훈장으로 유명한 방송인이다.

재 위촉된 가수 소명 씨와 노민 씨는 남원출신으로 이들은 그동안 남원시에서 펼쳐진 다양한 축제와 행사에 참여하는 등 남다른 남원 사랑을 펼쳐 오기도 했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SNS 소통활성화, 페이스북(남원좋아) 홍보대사 태그로 소식 게시, 축제와 행사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홍보대사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시장소개 및 문화유적 관광지 투어 탐방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남원시 홍보대사로는 모두 57명(사회저명인사 8명, 훈장선발수상자 49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임기는 3년으로 재위촉이 가능하다.

한편 이완주 시장은 홍보대사 위촉장을 수여하며 "각종 문화, 축제, 행사 등을 통해 남원 홍보에 기여하고, 남원을 알리고 위상을 높이는데 열정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중국인 관광객들로 북새통

치즈테마파크에 1천여명 찾아

임실군이 중국인 관광객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5일 군에 따르면 올 여름 전라북도 대표관광지인 임실치즈테마파크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전라북도 대표관광지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앞서 중국 남사성에 위치하고 있는 평양중학교(교장 류취강)는 초·중학교(신중초, 평양중) 학생 40여명과 함께 13박14일간 국내 수학여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8일 임실치즈테마파크에 방문하여 치즈체험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실시했다.

수학여행 중인 학생들은 "수학여행 중 가장 재미있었던 프로그램이 무엇이었는가" 라는 질문에 "치즈체험이 제일 재미있었다"고 답변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이번 수학여행은 지난 해 9월 중국 '성세환구교육그룹' 주영강 회장이 임실군을 방문, 홍보영상 제작하여 중국지역의 교육청 등에 홍보자료를 배포한 데 따른 것이다.

이어 5일에는 '2019 글로벌 무술문화 교류축제'에 참가한 중국 산둥성과 광둥성, 대만 등 청소년과 학부모 800여명이 임실치즈테마파크를 방문, 식사와 함께 관광지를 둘러봤다.

군은 이날 중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으로 필봉농악 공연을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제공한다.

또한 7일에는 '한·중태권도교류행사'에 참가한 청소년 등 113명도 임실치즈테마파크를 방문할 예정이다.

심 민 임실군수는 "앞으로 전라북도 대표관광지인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전라북도119안전체험관 등을 연계한 여행상품을 적극 개발하고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보건의료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순창군보건의료원이 순창군 건강통계 산출 및 지역보건사업 성과 평가에 활용될 기초자료를 작성 위해 오는 8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

이 조사는 만 19세이상 순창군민인 성인(2000년 7월 31일 이전 출생자) 9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흡연과 음주, 안전의식, 운동 및 신체활동, 식생활, 비만 및 체중조절, 혈압측정(3회), 키, 몸무게 등을 조사한다.

조사방식은 조사원 티셔츠와 신분증을 착용한 6명의 조사원이 선정된 가구를 직접 방문해 1대1 개별 면접방식으로 전자조사표(CAP)를 이용해 조사한다.

조사결과는 읍·면별로 주민의 건강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시·군별 차이를 파악해 순창군민 건강증진 정책수립과 활동에 필요한 기초통계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군민은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만큼 건강조사원 방문시 적극 협조와 성실한 답변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순창=이왕일 기자